

이의리 신인왕 ... 타이거즈, 36년 갈증 풀었다



29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솔(SOL)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신인왕에 선정된 KIA 이의리. /연합뉴스

KBO리그 신인상 수상

1985년 이순철 이후 첫 쾌거

KIA 장현식 '홀드왕' 차지

시즌 MVP는 두산 미란다

36년을 기다린 '타이거즈 신인왕'이 탄생했다.

KIA 타이거즈 좌완 선발 이의리(19)가 29일 진행된 2021 신한은행 솔(SOL) KBO 시상식에 신인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의리는 최대 575점을 얻을 수 있는 기자단 투표에서 417점을 획득, 368점을 얻은 롯데 자이언츠의 우완 불펜 투수 최준용(20)을 따돌렸다.

이의리의 수상으로 KIA는 36년 만에 신인왕 명맥을 잇게 됐다. KIA에서는 해태 시절을 포함해 1985년 이순철이 유일한 신인왕이다. 이의리는 타이거즈 두 번째이자 투수 첫 신인왕에 오르면서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무대에 뛰어든 이의리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일찌감치 선발 한자리를 꿰찼다.

공-수에서 야수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4승 5패에 그쳤지만 부상 전까지 19경기에 나와 94.2이닝을 소화하면서, 3.6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대부 첫해 팀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도 주목을 받았다.

이의리는 도쿄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돼 도미니카 공화국과 미국을 상대로 두 차례 선발 등판에 나섰다. 18개의 탈삼진으로 올림픽 탈삼진왕도 차지했다.

일방적인 흐름이 예상됐던 신인왕 경쟁 구도는 뜻밖의 부상으로 혼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9월 12일 NC전에서 손톱이 깨지면서 3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던 이의리는 이후 발목 부상과 손가락 물집으로 마운드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 사이 최준용이 무서운 기세로 롯데 마운드를 지키면서 성적을 쌓아갔다.

최준용은 후반기 29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86으로 2승 1패 1세이브 13홀드를 기록하는 등 올 시즌을 47.1이닝, 4승 2패 1세이브 20홀드 그리고 평균



29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솔(SOL)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투수 홀드 부문에 선정된 KIA 장현식. /연합뉴스

자책점 2.85로 마무리했다.

최준용도 눈부신 시즌을 보냈지만, 지난해 31경기에서 29.2이닝을 던진 '2년 차 선수'라는 점에서 '순수 신인' 이의리의 활약에 무게가 더 실렸다.

이의리는 "생애 한번 뿐인 신인왕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 키워주신 부모님과 좋은 가르침을 주신 감독, 코치님들 좋은 형들 선배님들 만나서 이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올해는 부상 때문에 완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몸 관리 잘해서 풀타임 뛰는 시즌이 많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선의의 경쟁을 벌인 최준용을 향한 인사도 있지 않았다.

이의리는 "후반기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준 준용이 형에게도 정말 멋있었다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홀드왕' 장현식도 시상대에 올라 KIA 자존심을 지켰다.

올 시즌 69경기에 나온 장현식은 3.29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5패 1세이브 34홀드를 기록, 홀드 1위를 장식했다. 타이거즈 첫 홀드왕이기도 하다.

장현식은 "올 시즌 이런 선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감독, 코치님, 트레이닝 코치님, 스태프에게 감사드립니다. 홀드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이 만들어줄 때 할 수 있는 기록이라서 뜻깊은 것 같다. 지금까지 잘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많이 던지면서 느끼는 게 컸다. 올 시즌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힘든 게 없고 내년에는 더 많이 던질 준비가 되었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MVP는 예상대로 두산 베이스의 외국인 투수 미란다가 차지했다.

올 시즌 28경기에 나온 미란다는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3(19)을 기록했다. 특히 225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무쇠팔' 최동원이 보유한 탈삼진(223개) 기록을 37년 만에 경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마무리 훈련 종료

'호랑이 군단'이 새로운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마무리 훈련을 끝냈다. 지난 4일 KIA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퓨처스 선수단이 먼저 훈련에 돌입했고, 11일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1군 선수단의 훈련이 시작됐다.

김종국 수석코치와 이범호 퓨처스 총괄코치의 지휘 아래 이뤄진 이번 훈련은 체력, 기술 강화 그리고 팀 전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했다.

1군 마무리캠프를 이끈 김종국 수석코치는 "선수 모두 부상 없이 기본기 위주의 훈련을 진행하며 전체 일정을 잘 소화했다. 야수는 수비, 주루, 타격 훈련에 초점을 맞췄고, 투수는 회복 훈련에 주력했으며 모두 높은 성취도를 보여줬다"며 "선수, 코치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스프링캠프를 위한 몸담들기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체력'에 집중한 정적인 캠프였다면 이번에는 '기본기'를 강조한 동적인 캠프가 운영됐다. 특히 야수진은 그라운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술 훈련을 전개했다.

프로 2년 차에 팀의 마무리로 우뚝 선 정해영은 "열심히 했다. 평소 하던 대로 웨이트, 트레이닝 부분에 신경 썼다"며 "프로그램을 잘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했다. 또 막내여서 앞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생각'을 더한 캠프이기도 했다.

정해영은 "작년에는 물 흘려가듯 시키는 대로 했다.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맞는 운동 등을 생각하면서 훈련했다"고 말했다. 정해영은 "매년 나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언급하면서 12·1월도 알차게 보내겠다는 각오다.

정해영은 "겨울에도 아는 센터에서 계속 체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에 집중할 생각이다"며 "항상 목표가 매년 '나를 뛰어넘는 것'이라서 더 잘하고 싶다. 올해는 말도 안 되게 잘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내년에 이닝도 더 던지고 싶고 1경기라도 더 하고, 세이브 하나라도 더 하고 싶다. 이제 시작이니까 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입단 후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하면서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낸 김태진에게도 이번 캠프는 새 시즌을 위한 발판이 됐다.

김태진은 "지난해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안 하고 웨이트적인 부분을 했다. 그 스케줄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개인적으로 안 된 것들을 해보고 코치님들과 이야기를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 날씨도 워낙 좋았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스프링캠프에 앞서 부족한 부분들을 시험해보면서 비활동 기간 준비 방향도 잡고, 불안감도 지웠다.

김태진은 "올해 안 했던 부분을 필드 나가서 해보니까 좋았다. 지난해에는 많이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안됐던 것들을 속제로 받으니까 좋다. 비시즌에 그 부분 신경 쓰고,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시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며 "12월에는 잠깐 본가로 가서 쉬었다가 광주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할 생각이다. 또 (김)선빈이 형과 같이 제주도 가서 기술 훈련, 러닝 등을 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더 치열하고, 동적이었던 마무리 캠프를 끝낸 KIA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경쟁'을 이어가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쇼트트랙 최민정,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000m 금메달

한국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은 28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린 2021-20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41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올 시즌 1~4차 월드컵에서 따낸 최민정의 첫 개인 금메달이다.

최민정은 지난달 1차 대회 여자 1,500m와 500m 결승에서 다른 선수와 충돌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때 무릎과 발목을 다쳐 2차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상을 털고 돌아온 그는 이달 3차 대회 1,000m에서 은메달로 사동을 건 뒤 마침내 4차 대

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에서 7바퀴를 남기고 5명 중 네 번째로 달리던 최민정은 6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 공략,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3바퀴를 남기고는 김 부탱(캐나다)에게 잠시 선두를 내줬으나 마지막 바퀴에서 다시 인코스 파고들어 1위를 차지했다.

남자부는 1,000m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곽윤기(고양시청)가 준준결승에서 2조 5위로 탈락했고, 김동욱(스포츠토)은 준결승 1조 4위로 파이널B에 진출해 1분26초846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녀 1,000m 출전권을 국가별 최대치인 3장씩 확보한 상태다.

/연합뉴스



최민정